

[1] 만일 어떤 외래 수도승이 먼 지방으로부터 와서 손님으로 수도원에 거주하기를 원하며, [2] 그 지역의 관례에 만족하고, 또 자기의 지나친 요구로 수도원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[3] 단지 거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든, 얼마 동안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받아줄 것 이다.

[4] 만일 그가 이치에 맞게 또 사랑에서 나온 겸손을 가지고 무엇을 비평하거나 지적하거든, 아빠스는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현명하게 숙고해 볼 것이다.

[5] 후에 만일 그가 자신의 정주를 확정하기를 원하거든, 손님으로 있는 동안 그의 생활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니, 이러한 소망을 거절하지 말 것이다.

[6] 만일 그가 손님으로 있는 동안 지나치게 요구했거나 악습이 있는 자로 드러났거든 수도원 단체에 가입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[7] 그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떠나가도록 그에게 정중히 말할 것이다.

[8] (그러나) 만일 내보낼 정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가 청할 때에만 그를 받아들여 공동체에 가입시킬 뿐 아니라, [9] 머물러 있도록 권고할 것 이니 그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이 감화되기 위해서이고, [10] 또 어느 곳에서나 한 분의 주님을 섬기고, 한 분의 왕을 위해 (우리가)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.

[11] 만일 아빠스가 그를 그럴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였거든 좀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다. [12] 수도승들뿐만 아니라 위에 말한 사제들이나 (여러) 계층의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인정되면 아빠스는 입회하던 때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정해 줄 수 있다.

[13] 그러나 아빠스는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수도원에서 오는 수도승을 그의 아빠스의 동의나 추천서 없이는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니, [14] "너에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"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.